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중재효과

조 성 연(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 혜 원(호서대 청소년문화상담학과 부교수)

김 민(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나 자살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중1~고3)의 19.2%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실제로 4.8%는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의 세 가지 유형의 행동을 포함한다. 자살생각이나 자살충동이 반드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에 선행하므로 자살시도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예언지표이기도 하다(허정은, 2004; Beck, Steer, Beck, & Newman, 1993).

청소년 자살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중 먼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른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에도 영향을 미쳐 개방적 의사소통보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나타낼 수 있으며, 중국에 가서는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또한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거나 불만족이 커지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불안, 두려움, 우울, 자살생각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교우나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우채영 외, 2010).

가정, 학교와 같은 맥락적 요인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청소년 자신의 내면적, 심리적 측면인데, 그 중 자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요인은 우울이다. 우울은 청소년 자살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영주, 2001; 우채영 외, 2010; Lewinsohn, Rohde, Seeley, & Baldwin, 2001; Weissman, Wolk, & Goldstein, 1999).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학교급과 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 우울이 중재효과를 갖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6개 시와 7개 군의 1,566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총 1,099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Barnes & Olson, 198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ACI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10문항)의 두 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개방적 의사소통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90$,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79$).

2) 학교생활만족도 척도: 장신국(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만족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중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1문항), 교우관계(6문항), 수업과 학습(6문항)과 교사관계(5문항)에 대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90$).

3) 우울척도: Radloff(1992)가 개발한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과 Lee(1992)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총 20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91$).

4) 자살생각 척도: Reynolds의 자살생각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신민섭(1992)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총 19문항)(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98$)

5)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성, 학교급(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학년, 지역, 출생순위, 가정의 월평균소득, 학교성적, 부모와의 동거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2009년 12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충청남도 시·군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해 각 척도와 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위해 t 검증과 F 검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학교급별, 성별 차이

1)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급에 따라서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일반계 고등학생(M=3.37, SD=.64)이 중학생(M=3.18, SD=.73)이나 전문계 고등학생(M=3.19, SD=.69)에 비해 부모들과 더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8.32, p<.000$). 반면,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교생활만족도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M=2.97, SD=.56)과 일반계 고등학생(M=3.01, SD=.50)이 전문계 고등학생(M=2.85, SD=.51)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학교생활만족도 총점)가 높았다($F=8.61, p<.000$).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우울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자살생각

학교급에 따라서는 일반계 고등학생(M=1.71, SD=.76)에 비해 중학생(M=1.87, SD=.89)이나 전문계 고등학생(M=1.96, SD=.91)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57, p<.000$). 성별 차이에서는 여자 청소년(M=1.91, SD=.85)이 남자 청소년(M=1.78, SD=.87)에 비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6, p<.05$).

2.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 우울 및 자살생각 간의 학교급별, 성별 상호상관

1) 학교급별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 모두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았고 반대로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우울 정도가 더 높았고 자살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청소년들 집단에서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였는데, 이 두 변인간의 관계는 나머지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보다 상관 정도가 더 컸다

($r=.501\sim.621$).

2) 성별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에 만족하는 정도도 더 높았고, 반대로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낮았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우울 정도가 더 높고 자살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변인간의 관계는 역시 나머지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보다 상관정도가 더 컸다 ($r=.565\sim.590$).

3.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학교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우울의 중재효과

1) 학교급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세 집단 모두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보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R^2=.408, p<.000$)과 전문계 고등학생($R^2=.316, p<.000$)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전반 만족도 뿐 아니라, 교사관계, 수업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 등 학교만족도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이들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R^2=.469, p<.000$). 이와 함께 세 집단에서 우울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는데 중학생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beta=.937, p<.000$)과 개방적 의사소통($\beta=-.143, p<.000$)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생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beta=.750, p<.000$)에 대해, 전문계 고등학생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아닌 학교수업($\beta=.548, p<.000$)에 대한 우울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다.

2) 성별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개방적,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모두 자살생각에 대한 중요한 설명변인이 아닌 반면($R^2=.397, p<.000$), 여학생들에게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살생각에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R^2=.391, p<.000$). 두 집단 모두에서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고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이와 함께 교우관계의 만족도가 의미있는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우울의 중재효과에 대해서는 남자 청소년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beta=.416, p<.000$)과 교사관계($\beta=.338, p<.01$)에 대한 중재효과가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beta=.363, p<.01$)과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우울의 중재효과($\beta=.305, p<.05$)가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이들의 자살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어떤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의 정도와 변인 간 관계가 청소년들의 학교급과 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중학교와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개방적 의사소통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전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한 학교생활전반, 교우관계, 수업과 학습에서 모두 중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교사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자살생각은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이 더 많이 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든 청소년들은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살생각도 더 적게 하였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들인 경우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지녔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우울, 자살생각에 대해 역기능적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이 높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우울, 자살생각에 대해 개방적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았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집단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낮은 학교생활만족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우울이 중재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부모와 역기능적 의사소통(말하지 않거나 말하기 어려워함, 잔소리나 모욕 들음 등)을 적게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낮추게 하는 중요요인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우채영 · 박아청 · 정현희(2010).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67.
- 한기석 · 정영조(2002).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치료적 개입. *인제의학*, 13(2), 151-157.
- Lewinsohn, P. M., Rohde, P., Seeley, J. R., & Baldwin, C. L.(2001).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4), 427-434.

부모-자녀의사소통 방식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중재효과

전 연 진(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조교수)

청소년 자살은 연구자들께서도 인용하셨듯 2008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지금 현대도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고, 자살 이후 그 주변인에 대한 개입 등 사후관리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을 중심으로 생태학적 맥락에서 청소년이 일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두 가지 장(場)인 가정과 학교 변인을 선택하고, 청소년 개인 변인으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데 간과해서는 안되는 우울 변인을 다룸으로써 자살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독립변인들을 선정하여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설계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는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 실용가치가 높은 논의와 제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이상 절차적, 내용적으로 우수한 연구의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급별로 상호작용을 나타낸 변인은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우울이 중재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의 중재효과에 대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우울의 중재효과가 매우 컸다. 이에 대하여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었으나, 청소년 우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울은 외적 요인이 아닌 청소년 개인의 내적 요인이므로, 누군가 청소년의 우울을 발견하고 다뤄줘야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함께 청소년 우울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및 그 방안에 대한 제언도 함께 이뤄진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현장 실무자가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계고 청소년의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 시 전문계고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로결정 부분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문계고 청소년은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학교수업과 학습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우울의 중재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문계고 청소년은 중학교, 인문계고 청소년과 달리 단순히 이과, 문과계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화된 계열선택을 통해 진학하였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황별 개인차는 있겠으나, 고등학교 입학 시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교 계열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이 전문계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다. 즉 학교수업만족도는 자신의 미래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의 중요 잣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계고 청소년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때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신의 미래와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계고 청소년의 결과는 그들의 상황에서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선택이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인구론적 변인을 다루는 표에 학년별 분포가 나와 있지 않다. 본문 중에는 학년별 대상 분포가 제시되어 있는데, 표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년별 분포가 중, 고등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것인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수치화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본문과 표 내용에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